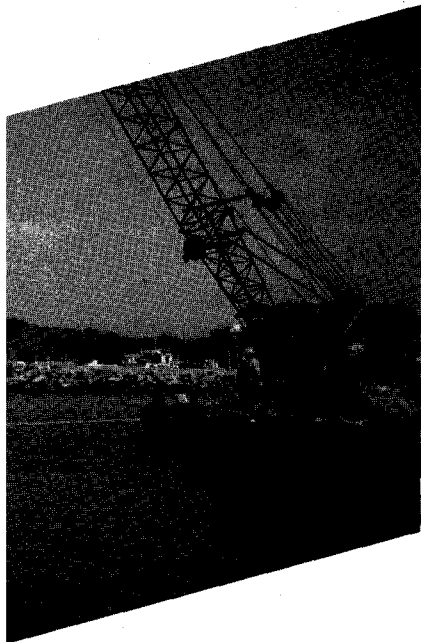


녹동항 건설 10년... 주민과 함께 한 '보람' 지역발전 핵으로 발돋움하다

曹 說 鉉 <金光企業(株) 現場所長>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에 자리잡고 있는 녹동항은
수산청 제1종 어항이다. 천혜
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녹
동항 개발에 참여한지 벌써
10년. 나는 이 기나긴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제대로 기
억조차 하지 못한다.

어항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바는 원
만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끝나
는 일이다. 그런데 이 '원만'
이란 것이 말은 쉽지 대부분
의 공사를 수행하다 보면 많
은 어려움을 동반한다는 사실
은 어항사업에 종사해본 사람
이라면 한결같이 체험한 일일
것이다.

특히 가장 애를 먹고 관
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은 다름아닌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다. 이 민원사태가 야
기 되면 번연히 두 눈을 뜨고
서 공사를 중단해야 하니 그

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녹동
항 개발에 참여한 나는 큰 행
운아인 셈이다. 왜냐하면 우
리 금광기업(주)이 이 사업에
참여한 10여년 동안 거의 단
한 건의 잡음도 없이 주민들
과 혼연일체가 되어 공사를
수행해 오고 있고, 지금 한창
마무리 작업에 열심이기 때문
이다.

1971년수산청 제1종 어항
으로 지정된 녹동항은 그해
곧바로 개발에 착수하긴 했으
나 사실 그 내용은 지리멸렬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격적인 개발은 1984년
어항구역이 확장되고 나서부
터이다. 그해 기본조사와 지
질조사를 실시하고 현재에 이
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어항공사를 하
다 보면 필연적으로 맞닥뜨리
게 될 매립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아마 매립공사를 수
행하면서 머리띠를 두른 주민
들과의 마찰을 경험하지 않은
공사장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고 말하고 싶다.

한, 두번쯤 현장 사무소 책
상이 뒤집어지고 떡살을 잡히
는 곤욕을 치러야 함에도 불
구하고 그런 일이 없이 조용
히 공사가 진행되니 오히려
불안할 지경이었다.

나는 그 까닭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물론 사전에 녹동항 발전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펼쳐
놓고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홍
보가 주효한
점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의 폭넓
은 이해와 앞
날을 바라보는
혜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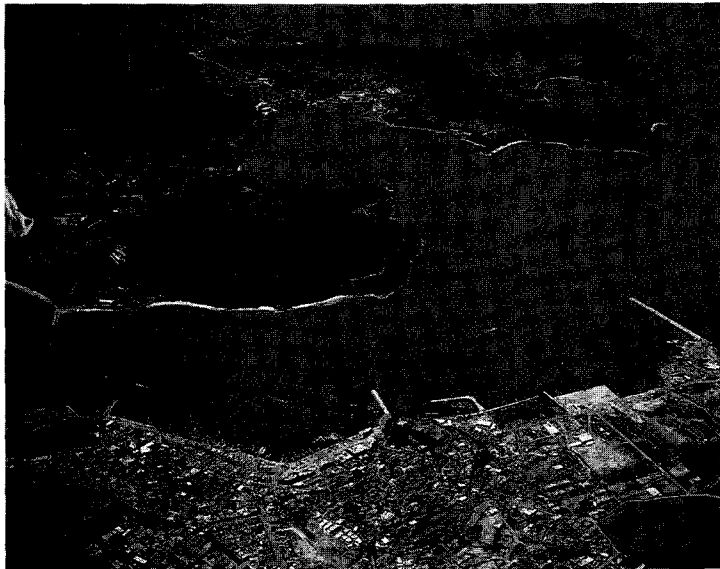
사실 녹동지
역은 녹동항을

빼놓고서는 달리 발전할 소지
도, 근거도 없는 편이다. 어
쨌거나 녹동항을 중심으로 경
제권이 형성되고, 생활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모든 지역
발전의 근본은 녹동항에서부
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
라 통계를 갖고 설명하면 보
다 이해가 쉬울 것이다. 녹동
지역의 지원어민수는 약 650
가구에 2,300여명, 지원어선
수는 530척정도이다.
그런데 매일 녹동항에 입항
하는 외래어선수는 전체 지원
어선수의 20%가 넘는 하루
평균 110척에 이르고 있다.
외래어선수가 많다는 것은 무
엇을 뜻하는가. 이 지역 경제
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 선수품 공급도 받아야 하
며 기름도 넣어야 한다. 이것
이 무엇인가. 모두 이 지역
경제와 연관된 일이 아닌가.
기왕에 통계가 나왔으니 어
획에 관한 것도 한번 살펴 보
도록 하자. 녹동항 지역의 주
어획 어종은 멸치, 낙지, 돔,
문어, 도다리, 삼치 등으로
연간 어획량은 5,300여톤에
이르고 있다. 금액으로 치면
자그만치 62억원에 이르는 방
대한 규모이다.

이 모든 경제의 흐름은 결
국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
이니 지금 설사
조금 불편하고,
또 수입이 떨어
진다고 해도 이는
미래를 위한 투
자에 불과하다
는 한 주민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놀라운
혜안에 머리가
숙여질 정도였
다.



한편 그 동안의 공사진행
사항과 규모는 다음과 같다.
녹동항에는 총 공사비가 150
억원이 투입되도록 계획이 돼
있었다.
동방과제 88m에 9,000만
원, 서방과제 100m에 6억4,
● **녹동지역 발전계기**
● **자부심과 보람느껴**
●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논리
● 이다. 일단 입항하면 어구도
● 정비해야 하고, 잠도 자야 되

000만원, 남방파제 400m에 47억8,000만원, 북방파제 250m에 27억원, 그리고 북쪽 섬 제방 250m에 26억4,000만원, 물양장 건설 910m에 38억9,000만원, 호안건설 202m에 2억6,000만원 등이

다. 10년이 흐른 지금 대부분의 공사는 완료되었고 단지 남방파제 일부와 북방파제 보강 일부, 물양장 일부가 남았을 뿐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올해 약 11억원을 들여 이를 수행한다면 대망의 '95년엔 서남해안에서의 으뜸 어항으로 탄생할 전망이다.

공사를 수행하면서 굳이 어려운 점을 들라 하면 석산개발의 곤란정도를 말할 수 있겠다. 약 10km쯤 떨어진 곳에도 석산을 개발하여 직원 1명을 상주시켜 왔는데 이곳이 무인지대라 근무가 불편했기 때문이다.

사실 섬지역의 어항공사는 배를 타고 몇km씩 가야 하는데 육상에서의 10km란 거리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금광기업(주)은 녹동항 개발사례를 우리나라 어항개발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손꼽아 이를 널리 홍보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회사도 그렇고, 주민 역시 한

마음, 한덩어리가 되어 공사를 수행했다 할 만큼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어항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녹동지역의 면모 역시 크게 바뀌고 있는 점에 관해서는 나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우선 대부분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이 지역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보기에 즐겁다.

어항공사가 완전히 끝나 내년이 되면 녹동항은 항내수면적 32만9,000㎡, 정온수면적 23만5,000㎡란 놀라운 규모의 어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규모는 10톤급 어선 615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규모로 인근 그 어느 어항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면모를 일신하게 된다.

순조로웠던 공사 감사 관계기관에도 고마움

더욱이 고흥군 녹동지역의 교통이 매우 편리하게 잘 정비돼 있어 양륙된 수산물의 수송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고흥지역 발전에 핵심적 역할

을 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 까닭은 인근의 수산청 제1종, 제3종 어항인 마량, 완도, 낭도, 초도, 시산, 내발, 사동항 등이 다소 교통이 외지거나 섬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녹동항의 조건과는 비교가 안되기에 더욱 그러하다.

공사를 마치며 이렇게 순조로운 어항공사만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어항발전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장담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지역이 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를 물리치고,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조그만 손실쯤은 감수할 수 있다는 그정신-바로 이것이 우리나라를 수산대국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릴 차례이다.

녹동항 지역의 모든 주민과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 그리고 수산청 감독관에게 마음 가득히 우리나라오는 감사를 드리고 싶다.

녹동항-그 녹동항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앞에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수십년 어항사에 가장 모범적인 시공사례로 손꼽히면서,